



”

”

(24)



2013 년 10 월 31 일 오전 10 시 20 분

알바노 모원 공동체소속

안나 마리아 조르다나 프린치삐 수녀님 선종

69 세 50 년 수도생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안나 마리아 수녀님을 하늘의 빠스또렐레와 함께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례를 드리도록 놔드렸습니다.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2008 년 11 월 총장의 공식방문 때 “나는 주님의 현존을 느꼈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나의 상황과 내 삶을 맡기고, 매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은총과 성소의 아름다움을 재 발견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에 항상 의탁합니다.” 라고 썼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선한목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데려가기위해 당신의 팔에 안을 때까지 자신의 빠스또렐라의 삶에 지속됐다.

1944 년 8 월 18 일 젠(Genga)에서 다복한 가정의 9 남매중 7 째로 태어나 8 월 20 일에 젠가의 로센가(Rosenga)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크리스찬 신앙 안에서교육을 받았고, 아직 청소년기인 1960 년 10 월 3 일 알바노 모원 공동체로 입회했다. 같은 곳에서 양성을 받고 1962 년 9 월 2 일 입수련 했다. 다음해 9 월 3 일 조르다나 수녀란 이름으로 첫서원을 했다.

유기성원기에는 다른 본당을 돌아다녔다 : 1963 년에서 1966 년까지는 Premadio Valdidentro 에서 유치원을 도와주면서 본당에서 그의 첫번째 사목을 수행했다. 이 본당에는 빠스또렐레가 짧은기간 진출 해 있었다. 1967 년 트란스 아쿠아에서 유치원 실습을 위해서 있었고, 1968 년 안코나 공동체에 합류해서 1968 년 9 월 3 일 알바노에서 있던 자신의 종신서원 전날까지 있었다. 1968 년부터 1996 년까지 여러 공동체에서 각종 사목을 하였으며 1997 년 알바니아로 선교를 떠나 ... 독재체제의 환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면서 15 년간 지냈다.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몇 년 동안 수도공동체의 아니마뜨리체 역할을 수행 했다.

수녀님의 섬세한 사도직과 수도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시기에 잘 드러났다. 수녀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뇌종양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진단으로 알바노의 모원으로 돌아오라는 강한 요청을 받고 2012년 2월까지 알바니아에 머물렀다. ...

안나 마리아 수녀님, 주님께 대한 신뢰와 교회와 수도회, 성소를 위하여 바친 수녀님의 삶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녀님께서 지금 우리와 수녀님의 가족들, 알바니아 교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전구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수녀님이 천상의 빠스또렐레와 함께 즐거움을 맞이하는 오늘 거룩한 성인들의 날에 함께 즐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을 전구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총 장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

2013년 10월 31일, 로마